



송인혁 작품. 잡아온 먹이를 전달하기 위해 날아오르려 하고 있다.

매를 쫓아 20여년, 그 시간을 묶다

송인혁 작가, 사진집 펴내며 첫 개인 사진전 '제주의 맹금류 '매'' ... 한라일보 갤러리ED서

"사진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고 신기하고 좋"아 시작된 사진 찍기가 어느새 40여년의 세월이

그 여정에서 새를 찍기 시작한 것도 어느덧 20여년. 새를 찾아, 새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다.

그 가운데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매'가 그를 사로잡았다. 현란한 몸놀림과 생태에 매료돼 쫓아 다닌 그간의 시간을 책으로 엮으며 송인혁 작가가 첫 개인 사진전을 연다. 이달 28일부터 6월 3일까지 한라일보 1층 갤러리ED에서 펼쳐보이는 '제주의 맹금류 '매'' 사진전이다.

작가는 "기다란 날개로 하늘을 자유로이 비행하며 하늘 높은 곳에서 지상 또는 공중의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은 가히 예술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매의 생태를 관찰하면서 제주의 조류생태를 사진에 담아내는 일은 송 작가에게 하나의

사명감이 됐다. 그렇게 사진집에는 그가 도 전역을 발품 팔아가며 매를 쫓아다니던 일상 등이 사진들로 채워졌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사진집에 수록된 100여점 가운데 34점을 골라 선보인다.

송 작가는 "제주의 해안가 주변 개발로 새들이 많아지면서 새들의 서식 터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이번 사진전과 사진집을 펴내면서 "야생에서 살아 나가는 새들과 사람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송 작가는 제주카메라클럽 회원이자 제주시청 공보실에서 20여년 간 사진촬영 및 영상 보존 담당 업무를 맡아 온 사진 전문가다. 현재는 우당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송인혁 작품.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하고 있다.

'다시 봄, 4·3에서 오월로' 기념 음악회

이달 28일 탐동해변공연장 이어 30일엔 광주에서 공연

제주4·3과 여순10·19사건, 광주5·18의 아픔을 보듬고 평화와 인권, 민주·통합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올해 세 번째 맞는 기념음악회는

'다시 봄, 4·3에서 오월로'라는 주제를 내걸고 이달 제주를 시작으로 광주, 여수로 이어진다.

이번 공연에선 4·3장작오페라 '순이삼촌', 여순10·19사건을 재조명하고 희생된 시민들의 아픔을 노래한 장작오페라 '1948, 침묵'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한 광주5·18 장작뮤지컬 '광주'의 수

록곡 등 세 지역의 창작콘텐츠가 융합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제주 공연은 이달 28일 오후 5시 제주 탐동해변공연장 야외무대에서, 이어 30일엔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여수공연은 오는 10월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기념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 광주문화재단,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2인극, 입체낭독극, 오브제 음악극 '다채'

극단 사자자리 창단 공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동심엔터테인먼트, 탐라순력도 소재 첫 작품 연극공동체 다음의 색깔로 재탄생한 '동물농장'

도내 신생 극단들이 첫발을 내딛으며 제주연극계에 새로운 활기를 더한다.

지난해 6월 창단한 극단 사자자리는 다음달 연극 '아무것도 아닌 일로'를 무대에 올려 창단 신고식을 치른다.

프랑스 현대 작가 나탈리 사로트의 대표 희곡인 '아무것도 아닌 일로'는 너무나도 하찮은 일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그려낸 작품이다.

국내 초연작으로, 희곡작가 겸 배우인 최성연 씨와 개인프로젝트 '바람 씨어터'로 제주에서 모노드라마 '자청비' 공연을 펼쳐온 한은주 씨가 출연한다. 극단 사자자리 대표인 이광호 씨가 연출을 맡았다.

공연은 6월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 세이레 아트센터 동네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가정의 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입체낭독극과 오브제 음악극도 잇따른다.

동심엔터테인먼트는 이달 27~28

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낸다.

젊은 연극인들로 구성된 연극공동체 다음의 오벨의 원작 소설 '동물농장'을 오브제 음악극으로 펼쳐보인다.

연극공동체 다음은 "광대들의 신나는 움직임과 흥겨운 음악에 다양한 오브제를 더해 농장의 물건들이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물로 변하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브제 음악극 '동물농장' (각색·연출 서민우) 공연은 6월 2일(오후 7시30분)부터 4일까지(토·일 오후 3시) 제주의 블랙박스 공연장 BeIN:(비인)에서 열린다. 오은지기자



극단 사자자리 창단 공연 연극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을 문화공간 연결로 지역문화 활성화

'고치:가치 프로젝트' 6개 컨소시엄 선정

제주도 4대 권역별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올해 문화거점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고치:가치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재단은 지난 10일 공모 접수 마감, 23일 최종 선정된 6개 컨소시엄을 발표했다.

6개 컨소시엄은 ▷물길 따라 마을 마실(라바르 팀-서귀포시) ▷살면살아지쿠다(마음빛그림 팀-동부권) ▷원도심에서 상상하다-제주환상(비아트대동호텔 팀-제주시) ▷NEW안덕계곡&NEW

저지 예술제(사)문화공간문막 팀-서부권) ▷LOCOCO 프로젝트(새당라움 팀-제주시), ▷화북문화공간 프로젝트(이디홀 팀-제주시)다.

재단은 "이로써 민간 문화공간들의 자발적 문화콘텐츠 기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마을의 지속적 있는 문화적 기반을 통해 지역성과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uh@ihalla.com

국립국악고 공연단 제주 무대

6월 5일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의 기획 초청공연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의 무대가 오는 6월 5일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제주 초청공연에선 왕의 행차 시 사용하던 대취타와 민속악산조합주를 통해 전통음악의 맛, 창작무용 '짓, 시나위'와 전통무용 탈놀이를 통해 아름다운 한국무용의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날 제주 출신 김은혜가 피리 협연자로 나선다. 무료 공연이다. 오은지기자

202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제12회 수월봉

Jeju Geopark Suwolbong Trail

2023. 5. 26(금) ~ 5. 28(일)

장소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천연기념물 제513호) 치귀도(천연기념물 제422호)

문의 제주시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위원회 Tel. 064)750-2543, 22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145

행사기간 주요 프로그램

5.26 ① 개막식 전 행사 [10:20~11:00]
- 고산리 민속보존회
- 고산 해녀 공연단

② 개막식 행사 [11:00~11:40]
- 내빈소개
- 개회사
- 환영사
- 축사
- 기념촬영

③ 개막식 후 행사 [11:40~12:00]
- 제주전통예술단

5.27 ④ 트로트가수 김서희 [11:30~12:00]
- 서민영 팬클럽-오카리나공연 [12:00~12:30]
- 한국뷰티고등학교 맨스동아리 '윈드' [12:30~12:50]

5.28 ⑤ 고산리 민속보존회 [14:00~14:20]
- 라온태권도 시범단 태권도 공연 [14:20~14:40]
- 날마다 소풍(우중환) [14:40~15:00]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시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위원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http://m.site.newer.com/528k

행사기간 탐방 안내

해설사와 함께하는 지질 탐방 프로그램

일정	시간대	탐방 방법	비고
5월 26일 (금)	① 10:00	5명	- 탐방은 사전예약자에 한하며 5명 이상일 경우에만 동행팀장이 가능합니다. 예약자는 반드시 예약시간대에 맞추어 행사본부에서 오셔서 예약 확인후 탐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10:30		
5월 28일 (일)	③ 13:00		- 회담최대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되며 현장예약도 가능합니다.
	④ 14:00		

*예약: 전화예약 (064-750-2543, 2291) 또는 네이버 예약 (QR코드링크)

지도 앵커비티 (치귀도 유람선) 탐방 트레일

일정	시간대	비고
5월 26일 (금)	09:30 ~ 10:40	행사기간 내 유람선 특별가격(현금 지불에 한함) - 성인만 12세 이상: 정상품 18,000원 → 행사요금 10,000원
	10:00 ~ 11:10	- 성인만 12세 미만: 정상품 13,000원 → 행사요금 9,000원
	11:00 ~ 12:10	① <행사 본부에서> 부스에서 '스티커 부착' ② <치귀도 유람선 대표소>로 이동 ③ <치귀도 유람선 대표소>에서 출항시간 확인 및 승선시간 선택 ④ 부착한 스티커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 지불 및 탑승 수속 ※ 신분증에서 받은 스티커가 있어야 특별 가격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 승선 승선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승선이 가능합니다.
5월 28일 (일)	13:30 ~ 14:40	- 성인: 온천명하중,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유아·청소년: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 현장 상황에 따라 출항 시간은 변경 및 결항이 될 수 있습니다.
	14:00 ~ 15:10	⑤ 부속에서 받은 스티커가 있어야 특별 가격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 승선 승선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승선이 가능합니다.
	15:30 ~ 16:40	⑥ 부속에서 받은 스티커가 있어야 특별 가격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 승선 승선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승선이 가능합니다.
	16:00 ~ 17:10	⑦ 부속에서 받은 스티커가 있어야 특별 가격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 승선 승선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승선이 가능합니다.
	17:00 ~ 18:10	⑧ 부속에서 받은 스티커가 있어야 특별 가격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 승선 승선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승선이 가능합니다.

* 개별 자유탐방을 원칙으로 하며, 하선후 차귀도 경관바위 지점에서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승선 출발시간 30분전까지는 <치귀도 유람선 대표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행사기간 부대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일시	컨텐츠
2023. 5. 26 (금) 10:00~16:00	고산 12리, 용수리 부녀회 학거리 정지, 고산 12리, 용수리 청년회 특산물 판매, 판매나무 팔찌 만들기,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체험, 열쇠고리 만들기, 지질공원 홍보 부스, 생물권 보전 지역 홍보 부스 등
2023. 5. 27 (토) 10:00~16:00	고산 12리, 용수리 부녀회 학거리 정지, 고산 12리, 용수리 청년회 특산물 판매, 판매나무 팔찌 만들기, 동백보리차 만들기,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체험, 지질공원 홍보 부스, 생물권 보전 지역 홍보 부스 등
2023. 5. 28 (일) 10:00~16:00	고산 12리, 용수리 부녀회 학거리 정지, 고산 12리, 용수리 청년회 특산물 판매, 판매나무 팔찌 만들기, 우산그림그리기,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체험, 지질공원 홍보 부스, 생물권 보전 지역 홍보 부스 등

① '신의 자원을 찾아서' SNS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3. 5. 26 (금) ~ 5. 28 (일)

참여방법 행사기간 중 코스에 위치한 (한봉), (사흘리), (도대봉), (늑고의 눈물) 중 한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자신의 SNS에 #제주도세계지질공원 #수월봉트레일의 키워드를 달고 업로드하면, 본부에서 확인 후 기념품을 지급 ※ 기념품 소진 시 해당 이벤트는 종료됩니다.

② '쓰레기 없GEO(지오)'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3. 5. 26 (금) ~ 5. 28 (일)

참여방법 행사기간 중 본부에서 생분해 비닐봉투를 받아 비닐 거둬쓰레기 수거해 오는 탈방에게 기념품 제공 ※ 기념품 소진 시 해당 이벤트는 종료됩니다.

③ '수월한 영수증'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3. 5. 26 (금) ~ 5. 28 (일)

참여방법 행사기간 내 고산리와 용수리에 위치한 자연스카에서 만원 이상 구매 한 영수증을 행사본부에서 확인 후 소정의 기념품 제공 (막가리정리 및 특산물 판매처에서도 사용 가능) ※ 기념품 소진 시 해당 이벤트는 종료됩니다.